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, 농촌 집 고쳐주기 실천

김영찬기자 | 승인 2023.04.12 17:36 | 11면

지역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통한 삶의 질 향상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가 지난 11일 주거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'집 고쳐주기'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(지사장 이경)가 지난 11일 주거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'집 고쳐주기'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했다.

공사에 따르면행사에서 '집 고쳐주기' 활동은 다솜복지재단과 농어촌공사가 농촌지역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활동이다.

지사 관계자는 전문 시공업체와 누수, 곰팡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호교체, 도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해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.

이 경 지사장은 "이번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"며 "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한편 의령지사는 영농철 일손 돕기,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며 ESG 경영을 실천할 예정이다. 김영찬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영찬기자